

2021년 04월 19일

KIWOOM

Weekly

실적 시즌에 의한 종목 장세 예상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추며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넷플릭스와 존슨앤존슨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발표된 주요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호조를 보였지만 이후 다양한 섹터의 실적 발표와 관련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 반응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 기업 실적 기간, 지수단 변동폭은 좁고 종목별로는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로는 미-중 갈등 확대 및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안정화로 성장주들의 반등이 탄력 있게 나타났던 만큼, 금리의 재차 상승은 증시의 매물 출회 요인이 될 수 있음. 중국 및 금리 관련 소식들을 눈 여겨 볼 필요. KOSPI 지수는 3,150~3,250pt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키움증권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02) 3787-5161

helloym@kiwoom.com

RA 김세헌

02) 3787-5150

saehun.kim@kiwoom.com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미국 금융주 실적과 소매판매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주 초반 본격적인 어닝시즌 시작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 흐름을 보이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며 상승 흐름을 지속. 여기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와 소매판매 서프라이즈로 미국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국내 증시에도 리스크 온 기조가 유입됨.

주중 미국 FDA와 CDC의 존슨앤존슨 백신 중단 권고 소식으로 일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지만, 파월 등 여러 연준위원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온건한 발언에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음. 무엇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이 기술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KOSPI지수는 66.74pt(+2.13%) 상승한 3,198.62pt, KOSDAQ지수는 32.23pt(3.26%) 상승한 1,021.62pt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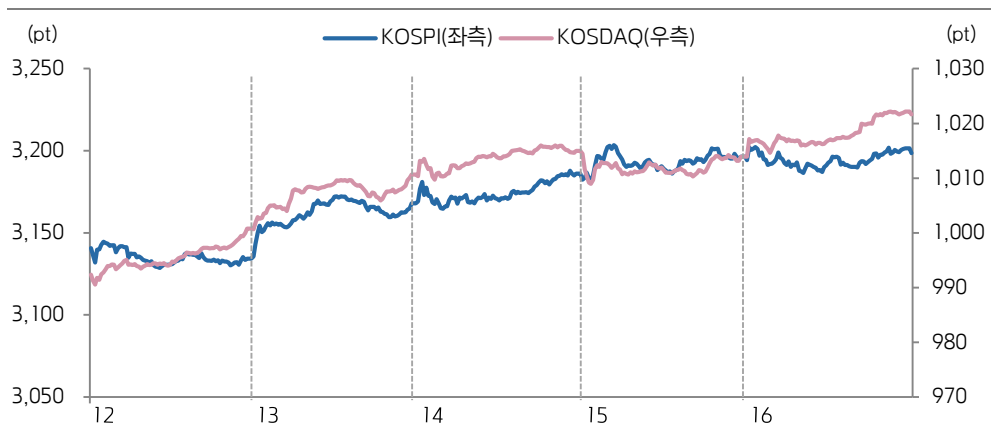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통신업(+6.79%), 화학(+5.60%), 의약품(+4.62%)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반면, 증권(-2.57%), 음식료품(-0.72%), 의료·정밀(-0.48%)은 약세 흐름을 보임.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화학(+4,158억원)과 통신(+1,795억원) 업종을 중심으로 2,728억원 순매한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6,601억원), 철강·금속(-1,234억원)을 중심으로 1조 1,823억원 순매도. 주체별로는 기금(-7,087억원)과 투신(-2041억원)의 순매도가 돋보였음.

KOSPI, KOSDAQ 투자지표 변화(12개월 Forward 추정치)

월/일	KOSPI		KOSDAQ	
	PER(배)	PBR(배)	PER(배)	PBR(배)
04/12	12.99	1.17	18.09	2.83
04/13	13.12	1.19	18.33	2.86
04/14	13.14	1.19	18.42	2.86
04/15	13.16	1.19	18.46	2.87

자료: Quantiwise, 키움증권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 경제지표 동향 및 이벤트 일정

1. 미국 어닝 시즌

4월 14일 수요일 미국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 금융 섹터가 아닌 기업들 중에서는 TSMC, LVMH, 펩시코의 실적 발표가 돋보임. 대부분 기업들은 시장 예상치를 쉽게 상회하는 모습이지만 발표 이후 주가 반응은 종목별로 다다른 모습을 보임.

<주요 은행주 실적 결과>

JP모건(-1.87%) EPS \$4.5 vs 예상 \$3.1
 골드만삭스(+2.34%) EPS \$18.6 vs 예상 \$10.2
 웰즈파고(+5.53%) EPS \$1.05 vs 예상 \$0.71
 뱅크오브아메리카(-2.86%) EPS \$0.86 vs 예상 \$0.66
 씨티(-0.51%) EPS \$3.62 vs 예상 \$2.60

<주요 은행주 실적 결과>

TSMC(-2.26%, 대만) EPS \$0.96 vs 예상 \$0.95
 LVMH(+2.86%, 프랑스) 매출 139.6억 유로 vs 예상 126억 달러
 펩시코(+0.14%) EPS \$1.21 vs 예상 \$1.12

<주간 실적 발표 일정>

월: **개장 전:** 코카콜라, 프로로지스, **마감 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화: **개장 전:** 존슨앤존슨, P&G, 애보트랩, 필립모리스, 록히드마틴, 할리 데이비드슨
마감 후: 넷플릭스, 인튜이티브 서지컬, CSX
 수: **개장 전:** ASML, 버라이즌, 넥스트에라, 할리버튼, **마감 후:** 램리서치, 월플
 목: **개장 전:** AT&T, 다나허, SAP, 블랙스톤, 다우, 바이오젠, 사우스웨스트, DR 호튼,
마감 후: 스넵
 금: **개장 전:** 허니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킴벌리클락, 슐룸베르거

주중 실적 발표 예정인 S&P500 기업들 중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넷플릭스, ASML 그리고 램리서치가 있음. ASML과 램리서치는 최근 다른 반도체 섹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을 고려하면 강한 성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넷플릭스의 경우엔 1분기 실적까진 높은 신규 가입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글로벌 주요 경제지표

미국 - 제조업, 서비스업 PMI

미국에서는 바이든 추가 부양 조치 이후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을 높였던 만큼 기업들의 체감경기 개선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함. 특히, 백신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서비스업 정상화 기대 등이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의 기업 체감경기 개선은 최근 높아진 미국 경기 낙관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금리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유럽 - 제조업, 서비스업 PMI

유로존 내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국가별로 봉쇄조치 연장 등을 결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체감지표의 개선세는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음. 컨센서스에서는 제조업 체감경기는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을 제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이 추가 부양 조치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을 높인 데 반해 유로존 경제회복기금의 진행이 예상보다 더디고 백신 보급도 느리게 이어지면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 모멘텀은 지연되는 모습임. 이런 흐름은 유로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지구의 날(Earth Day),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기후 정상회담(22~23일)

4월 22~23일 백악관은 어스데이 기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이번 이벤트는 11월 글라스고우 UN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만나는 예비 회담. 따라서 UN 회원국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후 변화를 위한 목표, 각 국가들의 책임, 이를 시행할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이슈 앞에서는 글로벌 공조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 주려는 목표가 있음. 특히 이벤트를 주최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임. 그렇다는 점에서 중국의 참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온라인으로 이뤄질 정상회담은 유럽 국가 정상들,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4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 중국 시진핑 주석도 초청은 되었지만, 아직 참석에 대한 소식은 없음. 이번 14~15일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공식 초청을 줄 것으로 보임.

〈예상 결과: 목표 재설정〉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파리 협정에 가입하면서 동의한 탄소 배출량 축소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의 배출량보다 20% 적게 배출하는 것이었음.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통해 그 목표를 2배로 상향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4월 12일 300개의 미국 기업들과 투자기관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약 2배를 늘리는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보다 50% 적게 배출하는 것을 요청. 여기엔 구글, 애플, 월마트, GE, 유니레버 등 기업들이 서한에 참여.

〈미-중 관계에 주는 영향〉

3월 20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유럽 동맹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마찰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케리 기후특사를 파견 시키면서 동맹국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미국 vs 중국 구도에서 동맹 관계들을 더 강화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동맹국들의 스탠스들이 중국에 대해 좀더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음. 13일 일본 스가 총리는 중국 정부를 향해 신장과 홍콩 지역 인권 개선을 요구함.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이 이례적인 일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스데이 회담이 미-중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 일단은 아직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 3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도 회담에 초청되었다고 언급.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국들이 많은 회담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참에 대한 위험도 존재함.

4. 4월 ECB 통화정책회의

4월 ECB 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과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가 예상되고 있음. 최근 9일 CNBC와 ECB 라가르드 총재의 인터뷰를 보면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여전히 완화적이며 당분간(최소 3개월)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시사.

<라가르드 인터뷰 주요 내용>

경제 전망

- 1) 올해 하반기 EU 경제의 강한 회복 예상.
- 2) 미국은 곧 인플레이 목표를 도달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EU는 아직 멈.
- 3) 올해 여름까지 인구 중 70%가 백신을 최소 1회분 접종 받게 유로존의 목표임
- 4)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더 크지만 중기적으로는 중립으로 개선.

리스크

- 5) 유럽 코로나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봉쇄조치들
- 6) 예상보다 훨씬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스탠스

- 7) 스탠스는 "완전한 유연성(Complete Flexibility)"
- 8) 목표는 "우호적 금융 여건 지속(preserving favorable financing conditions)"

긴축

- 9) 상황이 빠르게 호전된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음.

부양책

- 10) 유로존 재정 부양책, 기금+예산 2.2조 달러, 올해 하반기부터 투여 예정.
- 11) 미국 부양책들은 유럽한테도 긍정적인 여파 예상(Spillover)
- 12) 아직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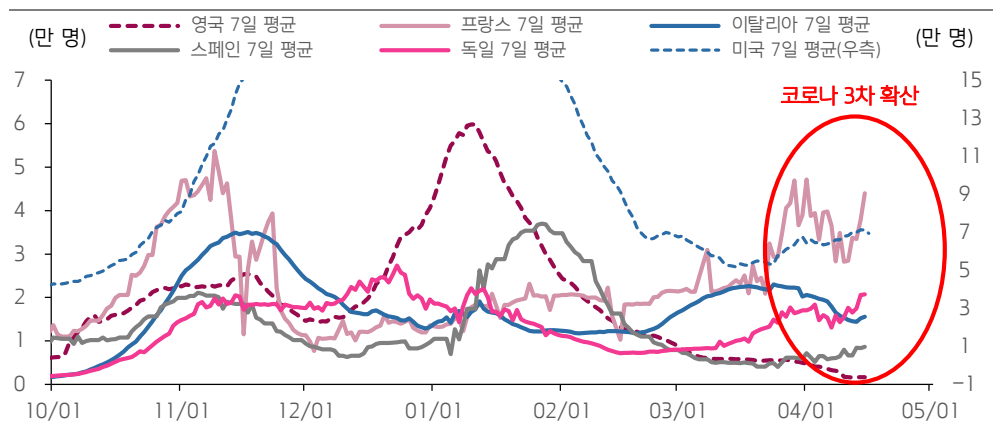
유로화

- 13) 특히 인플레이에 주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 중.

<ECB 의사록>

지난 3월 ECB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산 매입 규모 설정에 대해 논의. 결국 3월부터 상당히 (Significant) 커진 규모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추후에 더 적은 규모의 자산 매입을 용인한다는 전제에서 합의된 선행 성격이었음.

국가별 코로나 확산 추이(7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04.19~04.23)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월 19일	월	일본	수출 YoY	3월	12.2%	-4.5%	
		수입 YoY	3월	4.9%	11.8%		
		산업생산 MoM(최종)	2월	NA	-2.1%		
	EU	경상수지	2월	NA	30.5b		
		건설생산 MoM	2월	NA	0.8%		
	중앙은행 연준 위원들,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발표 바이든 두번째 인프라 패키지(사회복지 프로그램 집중, 4월 중) 실적 개장 전: 코카콜라, 프로로지스, 마감 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월 20일	화	독일	생산자물가지수 YoY	3월	NA	1.9%	
		영국	실업률	2월	5.1%	5.0%	
	공개	중국 LPR(대출우대금리), 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실적	개장 전: 존슨앤존슨, P&G, 애보트랩, 필립모리스, 록히드마틴, 할리 데이비드슨 마감 후: 넷플릭스, 인튜이티브 서지컬, CSX					
4월 21일	수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3월	NA	2.0%	
		수출(~20일까지) YoY	2월	NA	12.5%		
		수입(~20일까지) YoY	2월	NA	16.3%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0.9%	0.4%	
	주택가격지수 YoY	2월	NA	7.5%			
	영국 여왕 95번째 생일						
	기업	애플 특별 이벤트(신제품 발표 예정)					
	채권	미국채 20년물 입찰					
실적	개장 전: ASML, 버라이즌, 넥스트에라, 할리버튼, 마감 후: 램리서치, 윌풀						
4월 22일	목	EU	소비자기대지수	4월	-11.5	-10.8	
		미국	선행지수	3월	0.6	0.2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지수	4월	NA	26.0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3월	NA	-1.09		
		기준주택매매 MoM	3월	-0.8%	-6.6%		
	회의 어스 데이(Earth Day) 기후 정상회담(22~23일, 40개국) ECB 통화정책회의, 라가르드 총재 발언						
	발언	EU 폰데 레이언 집행위원장					
	실적	개장 전: AT&T, 다나히, SAP, 유니언 퍼시픽, 블랙스톤, 다우, 바이오젠, 사우스웨스트, DR 호튼, 마감 후: 스텝					
	4월 23일	금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0.2%	-0.4%
			제조업 PMI(잠정)	4월	NA	52.7	
서비스업 PMI(잠정)			4월	NA	48.3		
영국		소매판매 MoM	3월	NA	2.1%		
		GFK 소비자심리지표	4월	NA	-16.0		
독일		제조업 PMI(잠정)	4월	65.7	66.6		
		서비스업 PMI(잠정)	4월	51.4	51.5		
EU		제조업 PMI(잠정)	4월	62.2	62.5		
		서비스업 PMI(잠정)	4월	49.9	49.6		
미국		제조업 PMI(잠정)	4월	60.0	59.1		
		서비스업 PMI(잠정)	4월	61.3	60.4		
		신규주택매매 MoM	3월	12.0%	-18.2%		
실적		개장 전: 허니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김벌리클락, 슐롬베르거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지역	Board Member					
이름	제롬 파월	리처드 클라리다	랜들 퀸스	라엘 브레이너드	마셜 보우먼	
						
성향	중도비둘기파	비둘기파	중도 매파	비둘기파	중립	
투표권	◎, ○	◎, ○	◎, ○	◎, ○	◎, ○	
발언일자	4월 14일	4월 14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3일	
발언	연준은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 자산매입을 축소하게 될 것.	연준은 실업을 인하로 긴축 정책 펼치지 않을 것. 금리 인상 전엔 테이퍼링을 먼저 실행할 것. 몇 개의 목표들을 달성할 때까지 완전적인 정책 유지.	Libor 공식 중단이 필요함. 현재로선 2023년 중반까지 사용 가능. 2022년부터 공표를 사용하는 은행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 (통화정책 관련 발언 없었음)	백신 배포와 부양책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물가가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특히 기저 효과로 4~5월 인플레이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	현재 미 연준은 정책을 거둘 시기가 아님. 고용과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지역	보스턴	뉴욕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이름	에릭 로젠그렌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스터	제임스 블라드	에스터 조지	패트릭 허커
						
성향	매파	중도	매파	비둘기파	매파	중도 비둘기파
투표권	X, X	◎, ○	◎, X	X, X	X, X	◎, X
발언일자	4월 12일	4월 14일	4월 5일	4월 12일	2월 15일	4월 13일
발언	연준은 현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들을 감안했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지표에 변화가 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	연준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지표에 변화가 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	3월 고용보고서가 매우 긍정적. 하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 있음. 하반기 경제는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	미국인이 75%가 백신을 맞으면 긴축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음. 코로나 위기가 거상 요인은 경제 전망 개선의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연준의 정책 변화 필요는 없음.	미국 장기물 금리 급등은 우려할 점이 아님. 금리 인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 당장 과제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임. 그전에는 정책 변화 필요는 없음.	연준이 인플레이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 당장 과제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임. 그전에는 정책 변화 필요는 없음.
지역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댈러스	리치몬드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이름	닐 카시카리	찰스 에반스	로버트 카폴란	토마스 바킨	메리 데일리	라파엘 보스틱
						
성향	비둘기파	비둘기파	중도 매파	매파	비둘기파	중도 비둘기파
투표권	◎, X	X, ○	◎, X	X, ○	X, ○	X, ○
발언일자	4월 8일	4월 7일	4월 8일	4월 7일	4월 15일	3월 25일
발언	앞으로 4%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왜 올랐는지 가 관련 임.인플레이 위협을 막기 위 해 회복을 단축시키지 않을 것.	연준은 조만간 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금리 인상은 2024년이 돼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물 증세는 대부분 기업들이 가 2.5나 3%도 환영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급증할 순 있지만 여전히 달성 측면에서 아직 축소로 예상. 물 증세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미국 경제 재개방으로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급증할 순 있지만 여전히 달성 측면에서 아직 축소로 예상. 물 증세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미국 경제 재개방으로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급증할 순 있지만 여전히 달성 측면에서 아직 축소로 예상. 물 증세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미국 경제 재개방으로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급증할 순 있지만 여전히 달성 측면에서 아직 축소로 예상. 물 증세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자료: 각 언론사, 키움증권 (◎는 2020년, ○는 2021년 투표권 위원, X는 의결권 없음)

3. 한국 증시 전망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추며 등락을 보일 전망. 넷플릭스와 존슨앤존슨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발표된 주요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호조를 보였지만 이후 다양한 섹터의 실적 발표와 관련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 반응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 기업 실적 기간, 지수단 변동폭은 좁고 종목별로는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로는 미-중 갈등 확대 및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임.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안정화로 성장주들의 반등이 탄력 있게 나타났던 만큼, 금리의 재차 상승은 증시의 매물 출회 요인이 될 수 있음. 중국 및 금리 관련 소식들을 눈 여겨 볼 필요. KOSPI 지수는 3,150~3,250pt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요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	요일별 주요 내용
04월 19일 (월)	금)미국-일본 정상회담 금)실적 - 모건스탠리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모건 스탠리, PNC 파이낸셜 등 개별 기업 실적 소식들에 따라 변화 예상. 다만 사상최고치 수준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 월요일 한국 증시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금요일 미 증시 동향에 의해 변화 예상.
04월 20일 (화)	월)실적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월요일 글로벌 증시는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개별 기업 실적 소식들에 따라 변화 예상. 화요일 한국 증시는 저녁 넷플릭스 실적 앞두고 최근 상승폭에 대한 매물 출회 예상.
04월 21일 (수)	화)실적 -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수)한국 ~20일 수출입동향	화요일 글로벌 증시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 소식들에 따라 변화 예상. 수요일 한국 증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변화 예상. 이날 발표되는 한국 수출 지표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04월 22일 (목)	수)애플 특별 이벤트 수)실적 -ASML, 램리서치	수요일 글로벌 증시는 ASML, 할리버튼 등 개별 기업 실적 소식들에 따라 변화 예상. 목요일 한국 증시는 애플 이벤트, ASML, 램리서치 실적 소식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04월 23일 (금)	목)ECB 통화정책회의 목~금)어스데이 정상회담 목)실적 - 스냅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어스데이 정상회담과 개별 기업 실적 소식들에 따라 변화 예상. ECB 회의는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 없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금요일 한국 증시는 여러 이벤트에 반응하는 미국 증시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